

오정동 선교사촌 한양절충 주택의 공간적·구조적 절충방식 연구

서 호 석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김 경 수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한 필 원*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주제어 : 한양절충 주택, 선교사 주택, 전통한옥, 명재고택, 선교사 양옥, 절충, 변형, 단순화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84년 9월,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인 의사 알렌(H. N. Allen)이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한국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¹⁾ 그 후 1885년 4월에 교육선교사인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입국하는 등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근대적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와 관련된 건축물들을 건립하게 된다. 이들 서양 선교사가 선교의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유형은 주

택, 교회, 학교, 병원 등 다양하다. 초기에 선교사들은 기존의 한옥을 사용 목적에 따라 수리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그들은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이른바 한양절충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

이같이 20세기 전반에 건축된 한양절충 주택은 당시 전통한옥이 외국인에 의해 이해·수용·변형된 양상을 보여주는 대상으로서, 한국 주택의 발달사에서 중요한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양절충’이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서, 당시 주택의 구체적인 건축적 특징, 특히 절충의 방식과 그 결과 나타난 양상을 통해 절충의 건축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형적인 한양절충 주택인 ‘오정동 선교사촌’의 주택들을 대상으로, 한옥과 양옥이 만나 절충한 방식을 공간과 구조의 측면에서 규명하고, 절충의 결과 나타난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전통한옥이 외국인에 의해 수용된 방식과 그

* 교신저자, 이메일: grehan@hanmail.net

이 논문은 2008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한국과 접촉한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는 1832년 해외 성서공회의 구츨라프(Gutzlaff)이며, 체류할 목적으로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는 1865년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인 토마스(Thomas)이다. 토마스 목사는 1866년 처형되었다. 1882년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선교사들의 한국 체류가 불가능했다.(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대한기독교서회, 1994, 87~91쪽)

건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한옥의 근대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오정동 선교사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학교 구내에 위치한다. 그것은 한남대학교 설립을 추진한 미국 남장로교를 비롯한 여러 교파의 선교사 주거지로 조성되었다. 현재 오정동 선교사촌에는 1955년에 지어진 한양절충 주택 세 동(이하 '선교사 절충주택')과 1958년에 지어진 서양식 주택 세 동(각각 타요한하우스, 무어하우스, 로빈슨하우스로 불림. 이하 '선교사 양옥')이 남아 있는데, 본 연구는 전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다.

세 동의 선교사 절충주택은 당초 거주했던 선교사들을 기념해 각각 인돈하우스(Linton House), 서머빌하우스(Somerville House), 크

림하우스(Crim House)라고 불린다. 이 주택들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6월 27일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44호로 지정되었다. 연구 대상 건물의 개요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오정동 선교사 절충주택의 개요

건물명	층 수	바닥면적(m ²) (지상 / 지하)	평면형
인돈하우스	지하 1층 지상 1층	210.1 / 42.0	ㄷ자형
서머빌하우스	지하 1층 지상 1층	211.8 / 41.2	ㄷ자형
크림하우스	지하 1층 지상 1층	217.0 / 42.0	ㄷ자형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유형학적 비교분석방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연구 대상 건물의 유형을 공간과 구조 유형으로 나누어 참조 건물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연구 대상 건물의 유형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참조 건물은 연구 대상 건물과 유형적으로 관련될 때 의미를 갖는데, 연구 대상 건물이 한양절충식임을 고려하여 전형적인 전통한옥인 명채고택의 안채(이하 '명채고택')와 선교사 양옥인 무어하우스를 참조 건물로 선정했다. 1709년에 건립된 충남 논산의 명채고택은 전형적인 전통한옥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연구 대상 건물과 마찬가지로 안채의 평면형이 ㄷ자형이고 충청지역에 위치한다. 그뿐 아니라,



<그림 1> 선교사 절충주택(서머빌하우스) 외관



<그림 2> 선교사 절충주택 내부(서머빌하우스 응접실)



<그림 3> 선교사 양옥(무어하우스) 외관

안마당(기단 포함) 및 건물의 면적이 연구 대상 건물과 비슷하므로 참조 건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 동의 선교사 양옥은 연구 대상 건물과 건립 위치와 시기 그리고 건립자가 같으므로 참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세 동의 선교사 양옥은 모두 중복도가 있는 일자형 주택인데, 유독 타요한하우스는 현관 쪽에 손님방(방1)이 있고 큰 거실을 두어 현관과 복도가 연결되지 않는 등 예외적인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이는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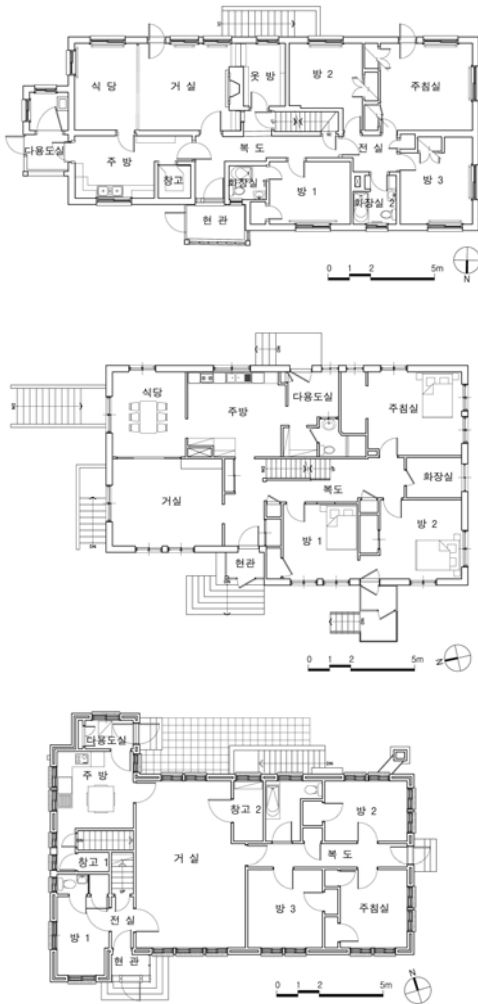
자의 특별한 요구에 따른 것이거나 후에 변형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타요한하우스보다는 무어하우스 혹은 로빈슨하우스가 선교사 양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무어하우스를 참조 건물로 선정했다.

분석방법을 보면, 먼저 실측도면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 건물의 공간적·구조적 특성을 파악한다. 공간적 특성은 주로 평면도와 공간연결도를 분석해 파악한다. 공간연결도는 현관이나 안마당 등 주출입 공간에서 시작해 단위공간들을 공간심도 별로 나란히 배열하고 연결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공간심도의 특성을 명료하게 드러내도록 작성한다. 구조적 특성은 주로 단면도를 통해 지붕과 벽체, 그리고 그 접합부의 구조방식을 분석해 파악한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 건물의 공간·구조 유형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요소와 패턴을 참조 건물과 비교함으로써 절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절충의 결과 나타난 공간적·구조적 양상들을 파악한다.

여기서 절충이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그 하나는 두 가지 요소 혹은 방식을 혼합해서 만든 새로운 요소 혹은 방식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두 가지 요소 혹은 방식 중에서 선택한 요소 혹은 방식들을 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절충방식 중 전자는 사실상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후자에 비해 건축사적으로 좀 더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연구자는 정확한 도면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 대상인 세 동의 선교사 절충주택, 그리고 참조 건물인 명재고택과 세 동의 선교사 양옥을 모두 정밀 실측하여 제반 도면을 작성했다. 실측 조사는 주로 2006년 10월 13일부터 2007년 1월 20일까지 진행



<그림 4> 선교사 양옥 평면도
(위로부터 무어·로빈슨·타요한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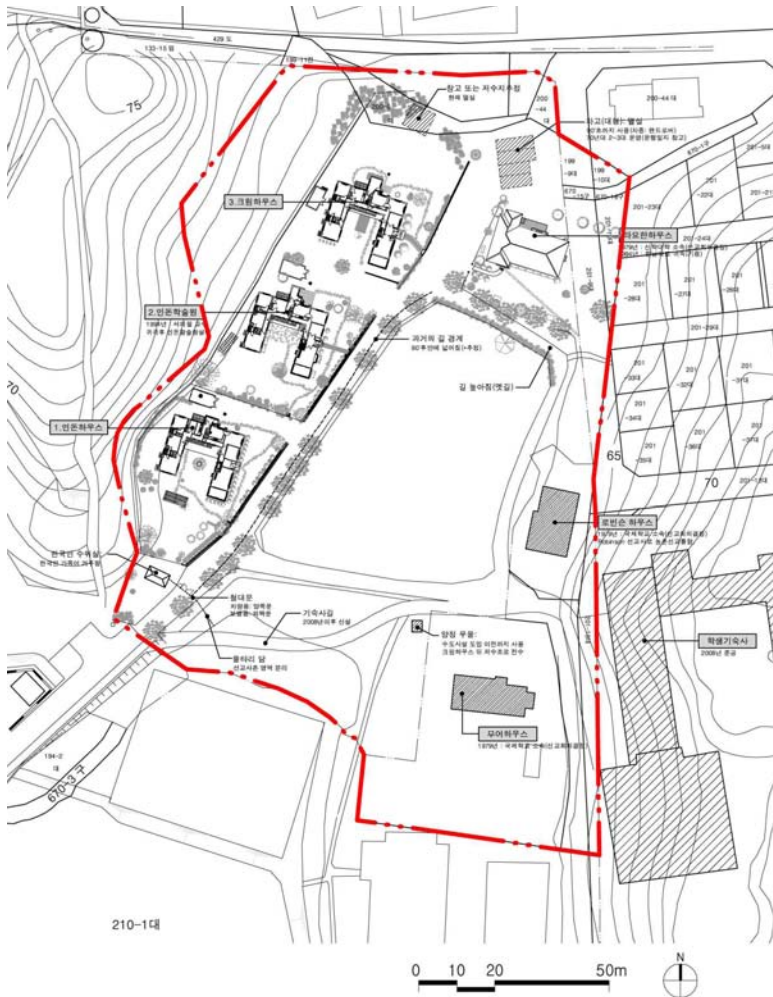
했으며, 그 후 수차례 수정과 보완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제반 서류와 관련 서적에 대해 문헌조사를 수행했다.

또한, 연구 대상 건물의 연혁과 원형적인 모습, 그리고 공간이용방식 등 본 연구에 필요한 배경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의 역사를 잘 아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했다. 주요 피면담자는 연구 대상 건물의 시공자인 박정규씨(작고)의 조카 박인평씨, 1960년대에 한남대(당시 대전대) 재학생으로 건물을 경

험한 바 있는 한남대의 김조년 교수 등이다. 면담조사는 2007 ~ 2009년에 걸쳐 연구 진행상 필요할 때 수시로 진행했다.

2. 선교사 절충주택의 공간적·구조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실측·문헌·면담 조사의 결과를 ‘선교사 절충주택의 연혁’과 ‘선교사 절충주택의 공간적·구조적 특성’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오정동 선교사촌 배치도(현재의 경계가 이점쇄선으로 표시됨)

2-1 선교사 절충주택의 연혁

오정동 선교사촌은 1954년, 현재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 일대 과수원 부지를 매입해 조성되었다. 선교사 절충주택을 건축한 선교사들이 속한 남장로교 선교부를 비롯해 침례교 선교부, 동양 선교부, 캐나다 선교부, 감리교 선교부 등 여러 교파가 인접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조성함으로써 상당히 너른 선교사촌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선교사촌 부지는 후에 점차 매각되어서 남장로교 선교부의 주거지만 남게 되었다. 1999년 5월경, 남은 선교사촌 부지를 모두 매각해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있었으나 '오정골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 결성되어 이를 철회시켰다. 이는 국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첫 성과로 기록된다. 이후 한남대가 남장로교 선교부 주거지를 매입하여 현재 19,837.5㎡에 달하는 선교사촌 부지가 남아있다. 오정동 선교사촌의 현황은 그림 5와 같다.

세 동의 선교사 절충주택은 1955년에 인돈(William Alderman Linton)²⁾ 부부의 계획으로 지어졌다. 이 주택들은 1982년에 처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는데, 그 이후 대수선의 기록은 없으나 부분적인 변형과 보수는 수차례 있었다. 현장조사를 통해 서머빌하우스와 크립하우스 다용도실의 지붕과 벽체에서 덧붙인 흔적을 발견했는데,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1974년에서 1982년 사이에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서머빌하우스는 1996년, 크립하우스는 2000년에 기존의 일식기와를 암수기와가 일체로 된 한식S형기와로 교체했으며, 인돈하우스는 2007년에 서측부의 서까래와 보, 기와 등을 보수 혹은 교체하였다.

인돈하우스는 ㄷ자형 건물의 중앙부를 중심

으로 서측부에 최근까지 외국인 교수의 숙소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으며, 동측부도 회의공간으로 사용되다가 2007년부터 비어있다. 서머빌하우스는 1994년 9월부터 한남대의 기구인 인돈학술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크립하우스는 ㄷ자형 건물의 서측부를 2007년까지 외국인 강사의 주거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며, 동측부는 선물과 식당공간에 침대를 배치해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회의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2-2 선교사 절충주택의 공간적·구조적 특성

1) 공간적 특성

세 동의 선교사 절충주택은 모두 안마당을 둘러싸는 ㄷ자형의 지상 1층 건물로, 기본적으로 공간구성이 동일하다. 중앙부 다용도실(인돈하우스에서는 부현관)의 상부에는 작은 다락이 있고, 창고·세탁실·보일러실·기계실로 구성된 지하실이 딸려있다. 건물공간의 켜는 약 3.45m 깊이의 실과 약 1.2m 폭의 복도로 구성되어 전통한옥의 전퇴집 구성과 유사하다.

건물은 중앙부와 동·서측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중앙부의 서비스영역을 중심으로 두 날개체가 각각 공·사의 영역으로 구분됨으로써 건물의 형태와 영역이 대응하고 있다.³⁾ 중앙부는 다용도실·주방·방(서머빌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주방으로 변경됨)과 계단실로 구성되는 서비스영역이다. 동측부는 현관·서재·응접실·식당으로 구성되는 공적 영역이며, 서측부는 남쪽 끝의 주침실을 비롯해 방들로 구성되는 사적 영역이다. 이 세 영역은 동측부의 현관과 서측부의 주침실을 잇는 ㄷ자형 복도

2) 인돈 목사(1891~1960)는 1912년 정식 선교사로 임명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전주신흥고등학교 교장(1930~1937)과 기전여자고등학교 교장(1937~1946)을 역임했으며, 한남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학장을 역임했다. 부인은 샬럿 벨 린튼(Charlotte Bell Linton)이다.

3)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특정되는 공간(영역)을 사적 공간(영역)으로 보았으며, 특정되지 않은 것을 공적 공간(영역)으로 보았다. 다만, 주부가 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방과 다용도실은 서비스 공간(영역)으로 분류했다.

로 연결된다.

선교사촌의 마을길에 면한 건물 동측부의 중앙에 현관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통해 건물로의 주진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용도실과 복도에는 부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6, 7 참조) 공적인 성격의 응접실과 서재는 현관에서 바로 진입되며, 응접실을 통해 연결되는 선룸과 방에 딸린 화장실2를 제외한 그 밖의 실들은 모두 현관과 복도를 거쳐 진입된다. 복도와 안마당은 유리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안마당과 실들은 이 복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2) 구조적 특성

선교사 절충주택의 지붕구조는 그림 12와 같다. 이는 명채고택 대청 부분의 구조방식인 무고주5량, 4분변작 방식의 전형적인 한식 지붕틀과 유사하다.(그림 13 참조)

선교사 절충주택에서 지붕-벽체 접합부는 벽기둥 위에 처마도리 겹 깔도리를 두르고 그 위에 대들보와 서까래를 엮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대들보는 서까래 사이에 위치한다. 대들보와 처마도리는 걸침턱맞춤으로 결구되어 있으며, 대들보와 벽기둥의 위치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서까래는 처마도리 상부에 각재를 대고 둥근 대못을 양쪽에 박아 결구하였다.(그림 15 ~ 17 참조)

선교사 절충주택의 벽체 구조방식은 뼈대는 목재로 구성하고 그 밖으로 벽돌이나 돌 등을 쌓아 벽을 설치한 목골구조(木骨構造, wood frame construction)⁴⁾로, 그중에서 벽돌 벽을 설치한 목골벽돌조⁵⁾이다. 목재 뼈대는 기초 위에 토대를 설치하고 공간 구성과 개구부의 위치를 살펴 평기둥을 세운 후 상부에 깔도리로

연결하였으며, 서양식 주택의 일반적인 목구조와 달리 깔도리가 처마도리를 겹하고 있다.

선교사 절충주택의 벽체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목재 뼈대를 안쪽에 설치하고 그 외부에 0.5B 치장쌓기를 하였다.(그림 17 참조) 한편,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은 복도나 서재, 다용도실에는 1.0B 네덜란드식 쌓기를 하였다. 215×110×57mm의 붉은 벽돌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반 표준벽돌기준⁶⁾보다 가로와 세로폭이 각각 25mm, 20mm 큰 규격이다.

선교사 절충주택의 벽체구성을 분석한 결과, 그것을 표 2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방식1은 내부 단열재를 포함한 목재 뼈대 외부에 0.5B 적벽돌 치장쌓기를 하는 것으로, 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 시간이 긴 공간에 적용되었다. 방식2는 목재 뼈대에 1.0B 네덜란드식 쌓기 방식으로 벽을 설치한 구조이다. 이는 이용 시간이 짧은 동선공간에 적용되었다. 방식3은 하부에 1.0B 네덜란드식 쌓기를 하고 상부에 목재 뼈대 창호틀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조망과 일조를 위해 넓은 창이 요구되고 단열의 필요성이 작은 공간에 적용되었다. 이같이 공간의 용도에 따라 벽체 구조방식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벽체의 길이를 기준으로 세 가지 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방식1·2·3이 각각 71·14·15%이다.

선교사 절충주택의 기초구조는 콘크리트 줄기초 방식이며, 바닥구조는 잠석다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점 기초 방식인 전통한옥이나 온통기초방식인 무어하우스와 다른 구조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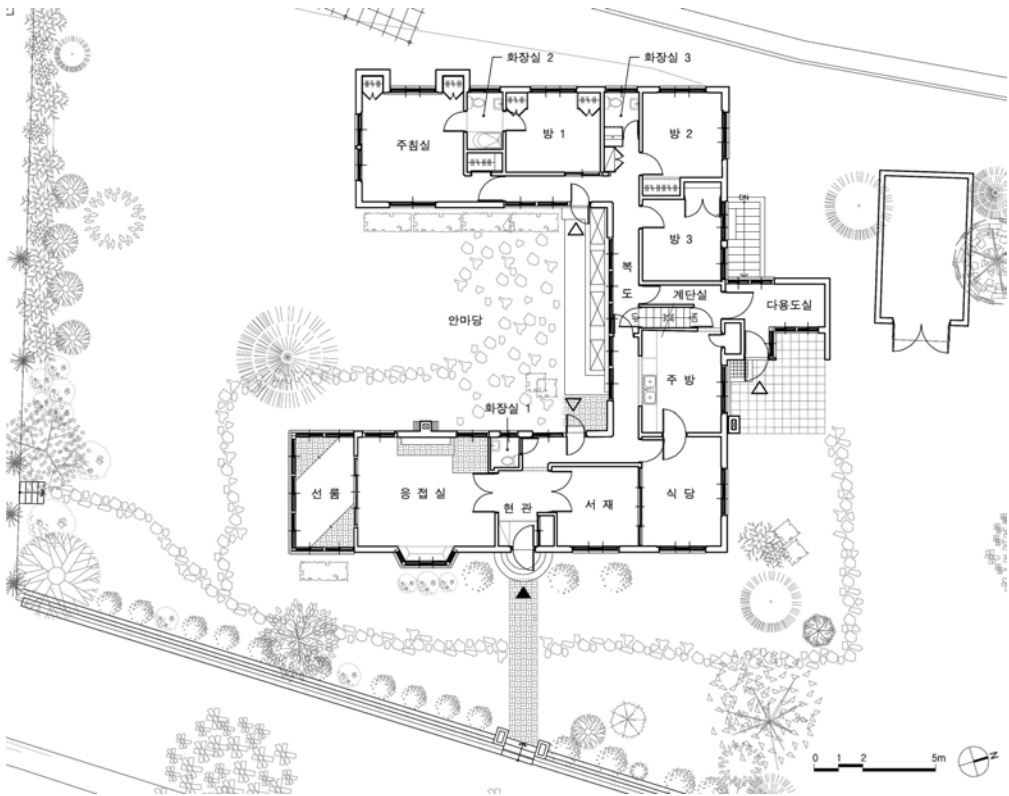
선교사 절충주택의 실 바닥은 실의 용도에 따라 카펫·타일·장판지로 마감되었다. 본래의 난방방식은 설비 도면이 남아 있지 않아

4) 장기인, 『신편 건축구조학』, 보성각, 2004, 3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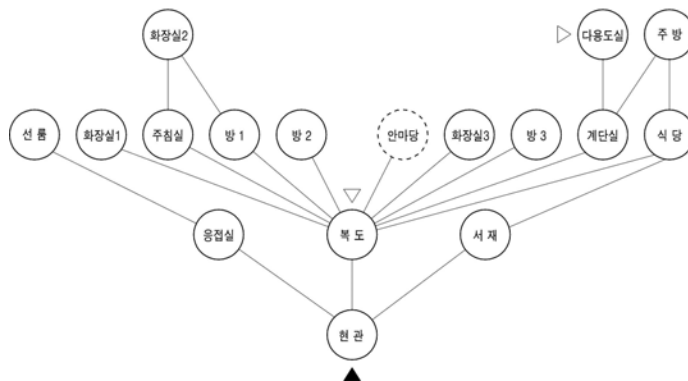
5) 건축물관리대장 기록에는 구조가 ‘연와조’와 ‘와즙(瓦葺)’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외관상 한식지붕틀과 조적조로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실측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한식지붕틀과 목골벽돌조임을 밝혔다.

6) KS L 4201 규정에 의한 조적용 벽돌규격은 길이 190mm, 폭 90mm, 두께 57mm이다.

구명하기 어려우나 면담조사⁷⁾와 현장조사를 증기난방 곧 소위 라지에타 난방방식으로 교체
 통해 바닥 온수난방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되어 있다.
 서머빌하우스⁸⁾를 제외한 나머지 두 동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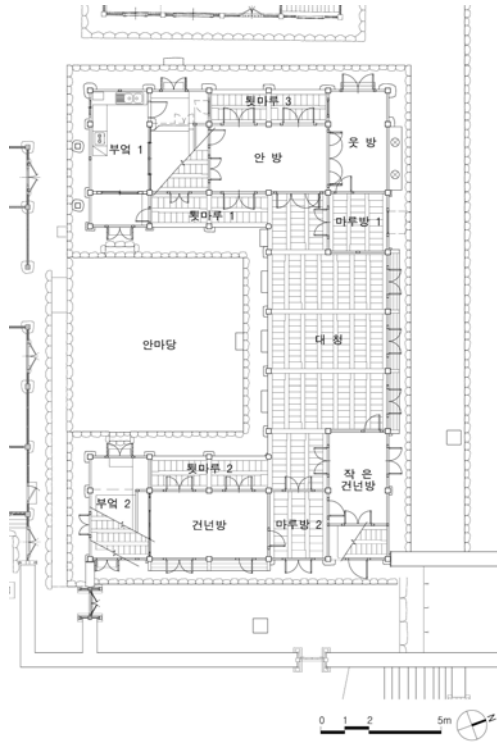
<그림 6> 서머빌하우스 배치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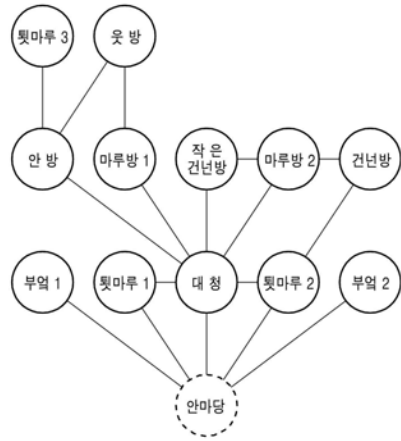
<그림 7> 서머빌하우스 공간연결도

7) 2009년 11월 5일 김조년 교수의 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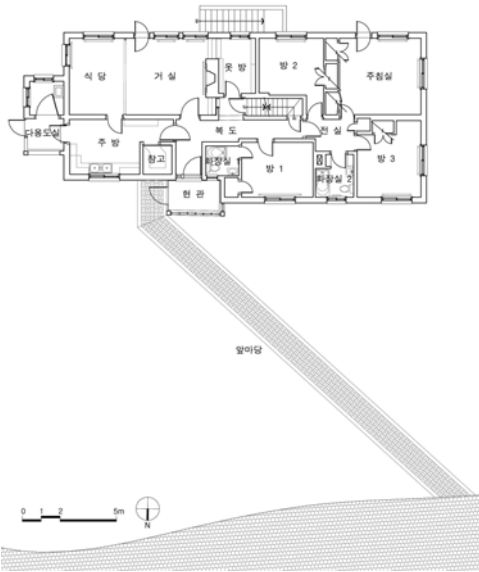
8) 서머빌하우스는 바닥 온수난방의 흔적인 보일러와 배관은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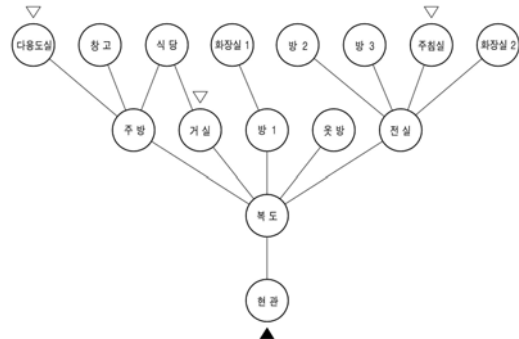
<그림 8> 명재고택 안채 배치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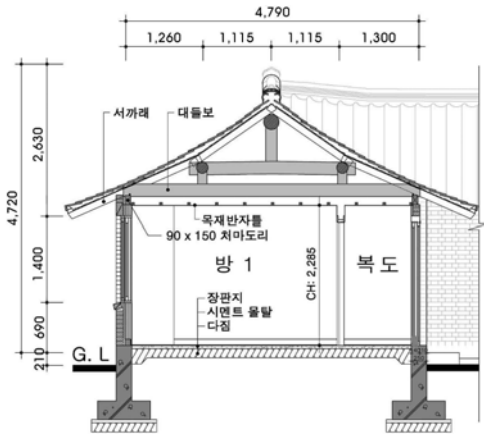
<그림 9> 명재고택 안채 공간연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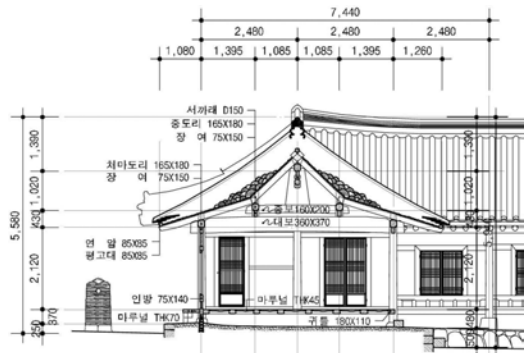
<그림 10> 무어하우스 배치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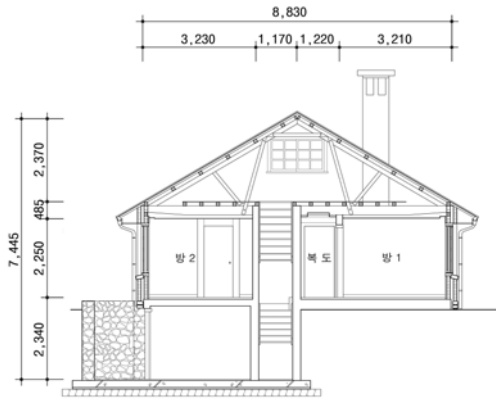
<그림 11> 무어하우스 공간연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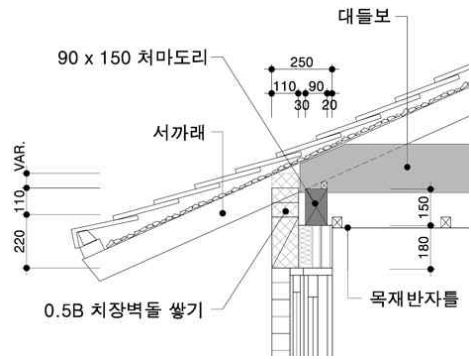
<그림 12> 선교사 절충주택 단면도
(서머빌하우스 방1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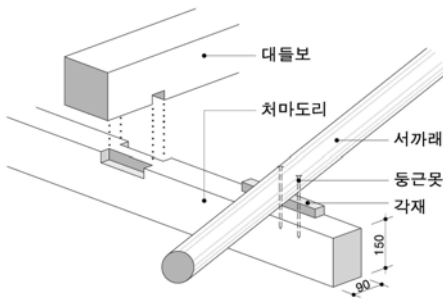
<그림 13> 명재고택 단면도(안채 대청 부분)
(자료: 문화재청)



<그림 14> 무어하우스 종단면도



<그림 15> 선교사 절충주택 지붕-벽체 접합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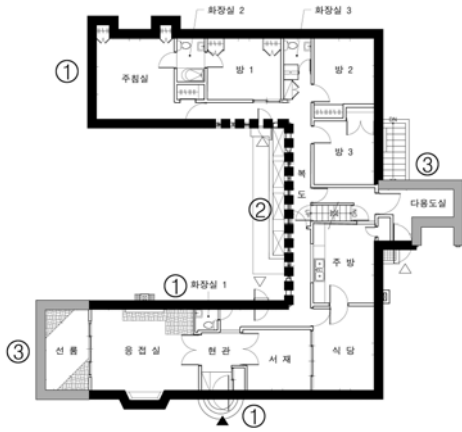
<그림 16> 선교사 절충주택 지붕과 처마도리의 결구방식



<그림 17> 선교사 절충주택의 외벽 구성

[표 2] 선교사 절충주택에 사용된 벽체구성방식

벽체구성방식	입면	평면	적용 공간	길이 (총: 101m)	비율
1. 목재뼈대 + 0.5B 적벽돌 치장쌓기			방, 부엌, 응접실	72.69m	71%
2. 목재뼈대 + 1.0B 네덜란드식 쌓기			복도	13.99m	14%
3. 상부: 목재뼈대 창호틀 하부: 1.0B 네덜란드식 쌓기			서재, 다용도실	16.50m	15%



<그림 18> 벽체구성방식 별 적용 부위

3. 절충에 따른 공간적·구조적 양상

선교사 절충주택에서는 다양한 공간적·구조적 절충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여러 건축적 양상들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그런 양상들을 ‘변형’과 ‘단순화’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변형은 형태나 성격이 바뀐 것을 말

하며, 단순화는 구성요소가 생략되거나 간략화된 것을 말한다. 이 두 개념으로 공간적·구조적 절충에 따른 양상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공간적 절충과 변형

1) 안마당과 현관·복도의 변형

공간요소의 측면에서 볼 때, 선교사 절충주택은 전통한옥의 요소인 안마당을 갖추고 그것을 둘러싸는 공간구성을 하는 한편, 현관·복도 등 선교사 양옥의 요소도 가지고 있어서 전통한옥과 선교사 양옥을 절충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안마당을 둘러싸는 ㄷ자형으로 공간이 구성됨으로써 안마당과 현관·복도가 공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선교사 절충주택과 두 참조 건물을 이들 세 공간요소를 중심으로 비교해보기로 한다.(그림 6 ~ 11 참조) 선교사 절충주택의 공간구성에서 중심적인 요소는 건물로 둘러싸인 중정, 곧 안마당이다. 이는 공간의 위상으로 볼 때 명재고택의 안마당에 해당하며, 무어하우스의 전정

(前庭), 곧 앞마당과는 다르다. 다만, 명재고택에서는 모든 실들이 안마당에서 직접 접근되거나 안마당을 거쳐서 접근되나, 선교사 절충주택에서는 응접실·서재 등 공적인 실을 포함해 모든 실들의 주출입이 안마당이 아닌 현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명재고택에서는 좌우의 날개채 길이가 같아 정방형에 가까운 안마당이 조성되었으나, 선교사 절충주택에서는 마을길에 면한 동쪽 날개채가 서쪽 날개채보다 2.6m 정도 길게 돌출되어 있다. 이로써 마을공간에서 안마당을 향한 시선이 가려져서 선교사 절충주택의 안마당은 좀 더 내밀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선교사 절충주택의 안마당은 형태적으로 명재고택의 안마당과 유사하나 성격은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교사 절충주택에서 모든 실들의 주출입은 현관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주출입 방식은 무어하우스 등 선교사 양옥과 동일하며 명재고택과는 다르다. 전통한옥에서 고정된 단일공간으로서의 현관은 없다. 그림 9에서 보듯이, 전통한옥에서 각 실로 출입하는 행위는 부엌처럼 안마당에서 직접 이루어지거나 안마당을 거쳐 접근하는 대청이나 툇마루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간의 위상으로 볼 때 안마당이 현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선교사 절충주택과 무어하우스 모두 현관을 갖고 있지만 후자와 달리 전자에서는 현관이 돌출되지 않고 외벽선 안에 구성되었다. 또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순수 현관 면적은 전자에서 2.0㎡, 후자에서는 5.5㎡로, 선교사 절충주택에서 현관의 면적이 많이 축소되었다. 곧, 선교사 절충주택에서 서양 주택의 주요 요소인 현관이 형태적·공간적으로 약화되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ㄷ자형의 복도가 외기에 면해 설치된 것은 선교사 절충주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복도는 그 기능이나 공간의 위상으로 볼 때 명재고택의 툇마루나 무어하우스의 복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교사 절충주택의 복도는 명재고택의 툇마루와 달리 네 면이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외기와 차단된 공간이다. 또한, 명재고택의 툇마루는 안마당과 약 1m의 바닥 높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공간은 기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연결되나, 선교사 절충주택의 복도는 바닥 높이차가 0.2m에 불과한 안마당과 두 곳의 문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결된다.

선교사 절충주택의 복도는 한쪽은 실에 면하고 다른 한 쪽은 안마당에 면한 편복도이나, 무어하우스를 비롯한 선교사 양옥의 그것은 양쪽 모두 실들에 면한 중복도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선교사 절충주택의 복도는 명재고택 툇마루나 무어하우스 복도가 공간적으로 변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영역구성의 변형

선교사 절충주택에서는 공적 영역(동측부)과 사적 영역(서측부) 사이에 서비스 영역(중앙부)이 위치하여 서로 성격이 다른 공적·사적 영역이 분절되어 있다. 명재고택에서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 중앙부의 대청을 중심으로 부모·자녀 세대가 점유하는 사적 영역들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 곧, 동·서 날개채가 각각 부모(시어머니)와 자녀(며느리) 세대의 영역에 해당한다. 한편, 무어하우스에서는 현관의 위치를 기준으로 공적 영역 및 서비스 영역과 사적 영역이 나뉜다. 특히 대부분의 사적인 실들은 전실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공간심도가 깊게 처리되어 있다.⁹⁾

9) 공·사 영역의 분리가 서양 주택의 기본적인 영역구성 방식인 반면,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을 세분하는 것은 한국 주택의 영역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선교사 절충주택은 분절·중재하는 서비스 영역이 분절된 두 영역(공적·사적 영역) 사이에 위치한다는 측면에서 명재고택과 유사하나, 분절되는 대상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라는 점에서는 무어하우스와 동일하다. 이런 면에서 선교사 절충주택의 영역구성은 두 참조 건물의 영역구성 방식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절충의 결과 나타난 방식은, 두 참조 건물의 영역구성 방식이 각각 상대 유형의 영향으로 변형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선교사 절충주택은 어떤 참조건물과도 다른 영역 구성 방식을 갖게 되었다.

3) 건물-마당 연결방식의 변형

선교사 절충주택은 건물이 안마당을 둘러싸고 있으나, 공간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복도가 건물 전면을 따라서 ㄷ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과 안마당은 두 곳의 문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결된다.

이는 전통한옥인 명재고택에서 대청·뒷마루와 안마당이 공간적으로나 공간 이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편, 무어하우스 등 선교사 양육에서는 앞마당에 면한 주요 실에서만 마당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 건물과 마당의 연결이 매우 소극적이다. 선교사 절충주택의 건물-마당 연결방식은 마당에 면한 건물의 경계부에 뒷마루가 아닌 복도가 설치됨에 따라서 명재고택의 적극적인 연결방식이 소극적인 방식으로 변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공간적 절충과 단순화

영역구성 방식은 문화적인 성격이 갖는 것으로, 지속성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대 이전의 한국 아파트에서 이른바 ‘공사실 분리’를 추구한 ‘침실 집중식 구성 방식’이 시도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거실이 침실들 사이를 분절하는 ‘거실 중심 구성방식’으로 바뀐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공동주택연구회,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333 ~ 346쪽 참조)

건축역사연구 제19권 4호 통권71호 2010년 8월

1) 건물공간 커 구성의 단순화

선교사 절충주택에서 건물 깊이방향으로의 공간 분화, 곧 건물공간의 커를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절충이 이루어졌다. 건물공간은 실, 그리고 그 폭의 1/3 가량 되는 복도 등 두 개의 커로 일정하게 구성된다. 단부에 있는 응접실·선룸과 주침실을 제외하면 각 실의 깊이는 약 3.45m로 동일하다. 이같은 공간 커의 구성은 전통한옥의 전퇴집과 유사하다.

이에 비해, 명재고택은 전면에서 보아 중앙부는 두 커의 깊이로 구성되어 겹집이며, 좌측은 전후퇴집, 우측은 전퇴집으로 부위별로 공간 커의 구성이 모두 다르다. 무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중앙에 복도를 둔 두 커의 공간으로 구성되나 실에 따라 공간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다.

선교사 절충주택은 기본적으로 전통한옥의 홑집을 바탕으로 하되 선교사 양육의 중요한 공간요소인, 일정한 폭의 복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참조 건물에 비해 단순하고 일정한 건물공간의 커를 갖게 되었다.

2) 공간 연결관계의 단순화

어느 공간의 심도는 그 공간을 접근하는 데 거치는 공간의 수와 비례한다. 곧, 공간의 심도가 깊을수록 거쳐야 하는 공간의 수가 많아지며 공간의 연결관계가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다.

선교사 절충주택을 이루는 실들의 공간심도를 단계별로 보면, 하나의 공간, 곧 현관만을 거쳐 접근되는 실(이하 ‘공간심도 1’로 표현)은 응접실, 서재, 복도이다. 두 공간을 거쳐 접근되는 실(이하 ‘공간심도 2’로 표현)은 식당, 선룸, 계단실, 주침실, 방·1·2·3, 화장실1·3이다. 세 공간을 거쳐 접근하는 실(이하 ‘공간심도 3’으로 표현)은 다용도실과 화장실2, 주방이다.(그림 7 참조) 공적인 실들은 현관에서

직접 접근되고 사적인 실들로 대부분 두 공간을 경유하면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재고택의 경우, 공간심도 1은 부엌1·2, 뒷마루1·2, 대청이다. 공간심도 2는 안방, 마루방1·2, 작은건넌방, 건넌방이다. 공간심도 3은 뒷마루3과 옷방이다. 선교사 절충주택보다 공간심도 1의 비중이 크고 공간심도 2의 비중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무어하우스의 경우, 공간심도 1은 복도뿐이다. 공간심도 2는 주방, 거실, 방1, 옷방, 전실이다. 공간심도 3은 다용도실, 창고, 식당, 화장실1·2, 방2·3, 주침실이다. 무어하우스는 공간심도 1의 비중이 작고 공간심도 3의 비중이 커서 선교사 절충주택에 비해 공간심도가 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교사 절충주택과 달리 무어하우스에서 현관이 돌출되어 하나의 공간으로 분절되었고 모든 공간이 복도를 통해서 접근되기 때문이다.¹⁰⁾

공간심도를 좀 더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공간구문론(Space Syntax Model)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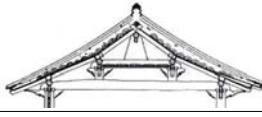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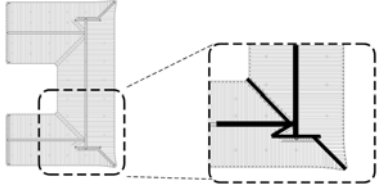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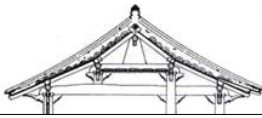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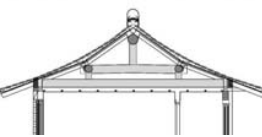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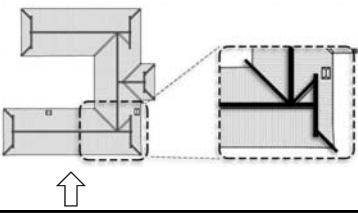
프로그램인 'SS1'을 사용해 주택을 구성하는 실들의 상대적 공간심도(RRA; Real Relative Asymmetry)의 평균을 구한 결과, 서머빌하우스가 0.8537, 명재고택이 0.8192, 무어하우스가 0.9447로 나타났다. 서머빌하우스의 상대적 공간심도 평균은 명재고택보다 다소 크고 무어하우스보다는 많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선교사 절충주택은 절충의 결과 선교사 양옥보다 명재고택에 가까운, 공간심도가 얕은 특성을 갖게 되었다.¹¹⁾

3-3 구조적 절충과 변형

1) 무고주5량 팔작지붕구조의 변형

선교사 절충주택은 공간의 커가 일정하듯이 지붕의 구조방식도 각각 한 가지로 일정하다. 명재고택의 경우, 부위별로 공간 커가 달라짐에 따라 목가구방식이 달라진다. 곧, 겹집인 중앙부는 무고주5량이며, 전후퇴집인 좌측은 2고주5량, 전퇴집인 우측은 1고주5량으로 구조 패턴이 부위별로 모두 다르다. 표 3에서 보듯

[표 3] 지붕틀 구조 비교

	구조방식	지붕틀 구성	지붕 꺾임부 방식
명재고택	무고주5량		
	1고주5량		
선교사 절충주택	무고주5량		

10) 특이한 것은 무어하우스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양옥에서 공적인 성격을 갖는 식당의 공간심도가 깊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구명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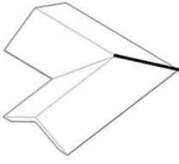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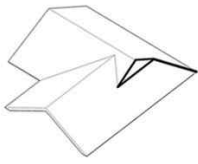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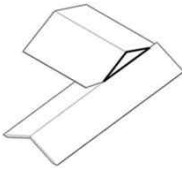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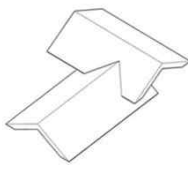
11) 공간구문론은 전체 공간 내에서 각 공간의 연결관계를 공간의 상대적 깊이로 계량화하는 객관적인 분석 방법이며, 그러한 공간의 상대적 깊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RRA이다.

이, 무고주5량 구조, 4분변작 방식으로 구성된 선교사 절충주택의 지붕틀은 명채고택의 무고주5량 구조와 동일하다.

선교사 절충주택의 지붕은 ㄷ자형의 팔각지붕이며, 몸체가 날개체와 만나는 꺾음부에서는 몸체의 후면을 향해 합각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명채고택은 ㄷ자형의 맞배지붕으로, 꺾음부에서는 중앙부의 측면을 향해 합각이 구성되어 있다. 두 건물 모두 중앙부와 날개체의 종도리 및 용마루의 높이는 동일하다.

선행 연구¹²⁾에 따르면 조선시대 지붕의 꺾음부 방식은 표 4와 같이 네 가지 방식으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5량과 5량이 만날 때 꺾음부는 일반적으로 2번의 형태를 띤다. 명채고택도 2번 방식에 해당한다. 전통한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 방식은 합각을 구성함으로써 추녀의 길이를 줄이려는 구조적 요구와 몸체의 측면에 합각을 구성하려는 의장적 요구를 충족해주는 방식이어서 흔히 채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조선시대 주택 지붕의 꺾음부 형식

1. 추녀(O), 합각/박공(X)	2. 추녀(O), 합각/박공(O)
	
3. 추녀(X), 합각/박공(O)	4. 추녀(X), 합각/박공(X)
	

자료: 김정현, 김하나, 전봉희, 「조선시대 주택 꺾음부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권 6호, 2009. 6

선교사 절충주택의 지붕틀을 표 4의 2번 방식과 비교하면, 다른 부분은 동일하나 꺾음부의 합각 처리에서 변형이 일어났다. 곧, 명채고택에서는 중앙부의 측면에 합각이 구성된 반면, 선교사 절충주택에서는 중앙부의 후면에 합각이 구성되었다. 전통한옥에서 합각이 보이는 것은 건물의 측면을 의미하므로, 그것을 중앙부의 측면이 아니라 후면에 구성한 것은 진입하는 방향에서의 정면성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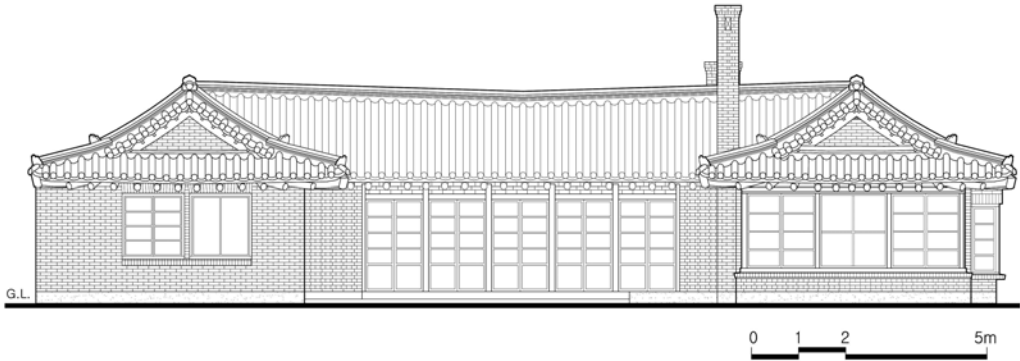
2) 벽체구조의 변형

선교사 절충주택의 벽체는 목골벽돌조로, 목조와 벽돌 벽돌조가 결합된 이중의 구조이다. 이는 전통한옥의 목가구조보다는 서양식 목구조와 벽돌 조적조가 절충된 형식으로 보아야 하지만, 벽돌 조적조를 그대로 채용하지 않고 이렇게 변형한 것은 어느 정도 전통한옥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벽구조는 개구부의 면적, 곧 건물의 개방성에 영향을 주는데, 선교사 절충주택은 이렇게 서양주택의 벽돌 조적조를 변형함으로써 벽돌 조적조보다는 전통한옥에 가깝게 개방적인 입면을 구성할 수 있었다.(그림 19 참조)

3-4 구조적 절충과 단순화

구조적 절충에 따른 단순화는 전통한옥의 지붕틀과 서양식 벽체구조가 만나는 지붕-벽체의 접합부에서 나타났다. 선교사 절충주택의 지붕틀과 벽체의 결구방식은, 대들보와 처마도리는 걸침턱맞춤, 서까래와 처마도리는 등근못으로 고정하여 결구되었다.(그림 16 참조) 대들보와 처마도리의 결구는 간단한 맞춤으로 이루어졌는데, 한식 목가구조에서와 같이 맞춤이

12) 김정현, 김하나, 전봉희, 「조선시대 주택 꺾음부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권 6호, 2009. 6



<그림 19> 서머빌하우스 남측 입면도

기둥 상부에 위치하지 않고, 기둥의 위치와 관계없이 벽체 상부의 처마도리에 결구되었다. 명채고택에서는 기둥머리에 사개를 만들어 대들보머리와 장여를 걸고 그 위에 처마도리를 놓아 서까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한식 지붕틀은 대들보 위에 처마도리가 없어져 서까래를 지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선교사 절충주택에서는 90×150mm 각재인 처마도리 위에 대들보와 서까래가 동시에 결구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지붕틀과 벽체의 결구방식은 전통한옥의 복잡한 맞춤을 단순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교사 절충주택의 지붕틀-벽체 접합부는 서양 주택의 전형적인 지붕-벽체 접합방식을

사용한 무어하우스와도 다르다. 무어하우스에서는 트러스의 평보가 깔도리 위에 놓이고 그 위에 처마도리가 놓인 반면, 선교사 절충주택에서는 대들보와 서까래가 처마도리 겸 깔도리 위에 결구되는 특이한 방식을 사용했다. 곧, 지붕구조와 벽체를 연결해주는 깔도리와 처마도리 중 하나를 생략해 단순하게 접합부를 구성한 것이다.

이같이 선교사 절충주택의 지붕-벽체 접합부는 전통한옥인 명채고택과 선교사 양옥에서 사용된 접합부를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두 접합부 방식을 모두 단순화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구조적 절충의 방식과 양상을 개념도로 표현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선교사 절충주택의 구조방식 절충 개념

(검은 선은 변형, 흰 선은 단순화를 표시함)

항목	전통한옥 구조요소	선교사 절충주택 구조방식	서양 주택 구조요소
1. 지붕틀	한식 지붕틀	한식	트러스
2. 벽체	목가구조	절충	벽돌 조적조
3. 지붕틀과 벽체의 결구	맞춤·이음	양식	처마도리· 깔도리+철물

4. 결론

본 연구는 대전 오정동 선교사촌에 현존하는 한양절충 주택들의 공간적·구조적 특성을 절충방식과 그 결과적 양상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전통한옥인 명재고택과 선교사 양옥인 무어하우스를 참조 건물로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양절충 주택들은 안마당, 현관·복도 등 전통한옥과 선교사 양옥에서 특징적인 공간요소들을 결합하여 구성되었으나 건물공간 커, 영역, 공간 연결관계 등의 구성방식은 전통한옥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전통한옥의 지붕틀과 서양 주택의 벽체구성을 수직으로 병치한 특이한 혼합 구조방식을 채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로 부터 전통한옥과 서양 주택을 균등하게 절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교사 절충주택의 특징적인 공간요소와 구조요소를 전통한옥 및 선교사 양옥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선교사 절충주택의 공간요소와 구조요소 비교

	○ 전통한옥	▲ 선교사 절충주택	□ 선교사 양옥
공간요소	마당 안마당 현관 (없음) 복도 (빛마루)	안마당 건물에 내포·속소된 현관 편복도	앞마당 홀출 현관 중복도
구조요소	지붕 무고주 5량 한식지붕틀 벽 목기구조 지붕-벽 접합 맞춤	트러스 지붕 목골벽돌조 벽돌조적조 간략화된 맞춤	트러스 지붕 벽돌조적조 철물 고정

한양절충 주택에서 서로 다른 양식의 요소들을 절충한 결과 나타난 여러 양상들은 변형과 단순화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변형의 양상들을 살펴보면, 안마당과 현관·복도 등 주요한 공간요소들이 본래의 성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성격이 변형되었다. 또한, 영역구성과 건물-마당 연결방식이 변형되었다. 그리고, 지붕구조와 벽체구조에서도 각각 변형이 나타났다.

단순화 현상 또한 공간과 구조 모두에서 나타났다. 한양절충 주택의 건물공간 커는 참조 건물들에서보다 단순하고 일정하게 형성되었다. 그리고 전통한옥의 지붕과 서양 주택 벽체의 이질적인 구조가 만난 결과, 그 접합부에서 각각의 구조방식이 단순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접합부에서 각각의 구조방식을 단순화할 경우, 하나의 건물에 이질적인 구조들을 본래의 특성을 대부분 유지한 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형과 단순화를 통해 선교사 절충 주택은 서로 다른 건물유형에서 채용한 요소 혹은 방식들을 직설적으로 조합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건물유형의 특성을 융합한, 건축사적으로 의미있는 절충식 건물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전통한옥과 서양 주택의 절충방식과 그에 따른 변화양상들은 한옥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오정동 선교사촌의 한양절충 주택 세 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추후 다양한 지역·시기·조건외 한양절충 주택들을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론으로 분석할 경우, 전통한옥과 서양 주택의 절충방식과 그에 따른 변화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대한기독교서회, 1994 2. 공동주택연구회,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역사』, 세진사, 1999 3.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4. 김정동, 『근대 건축 기행』, 도서출판 푸른역사, 1999 5.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서양건축의 전이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6. 김정현, 김하나, 전봉희, 「조선시대 주택 꺾음부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권 6호, 2009. 6 7. 김태영 외, 「근대기 목조 지붕트러스의 유형분류 및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8 8. 도선봉, 「한국근대건축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장로회 선교건축의 특성」,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9. 오승재 외, 『인돈평전』, 지식산업사, 2003 10.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11. 임석재,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대원사, 1999 12. 장기인, 『신편 건축구조학』, 보성각, 2004 13.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문화사, 1991 14. 정태용, 「한국건축에 나타난 근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5. 『한국의 전통가옥 - 윤증선생고택 중요민속자료 기록화보고서』, 문화재청, 2007 | <p>접수(2010. 6. 15)
수정(1차: 2010. 8. 14)
게재확정(2010. 8. 28)</p> |
|---|--|

The Spatial and Structural Eclectic Modes of the Korean-Western Eclectic Houses at Ojeong-dong Missionary Village

Seo, Ho-Seok

(Master Course, Hannam University)

Kim, Kyeoung-Soo

(Master Course, Hannam University)

Han, Pil-Won

(Professor, Hannam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Western eclectic houses at Ojeong-dong Missionary Village in Daejeon city, focused on the spatial and structural changes due to eclecticism. The consequence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eclectic houses and two reference buildings, Myeongjae residence and Moore house, are as follows.

The diverse aspects due to eclecticism can be summarized as two concepts; transformation and simplification. The transformation has appeared in the characteristic spatial elements such as *an-madang*, entrance and corridor, in the territory organization and the connection between building and yard, and in the roof and wall structures. The simplification has appeared in the layering of the building space, and in the joint of roof and wall.

The methods of eclecticism and the resultant aspects from them that are clarified through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referred in examining the new possibilities of the *hanok*.

Keywords : Korean-Western Eclectic House, Missionary House, Traditional Hanok, Myeongjae Residence, Missionary Western House, Eclecticism, Transformation, Simplification
